

투데이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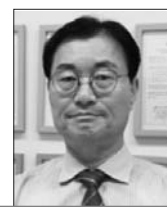
늦었지만 다행이다!... 학교체육 30여 년간 흑역사를 벗어나면서

지난 10월 31일 교육부는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이 심의,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증가 등을 포함한 체육 활성화 정책(4대 핵심과제)이 추진될 전망이다.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초·중·고의 체육수업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초등 1~2학년의 신체활동 시간을 현재 2년간 80시간에서 144시간으로 80% 증가하여 확대·편성해 운영한다.

특히 초등1~2학년의 '즐거운 생활'에 포함된 신체활동 영역을 별도의 '체육' 교과로 분리하고 초등 5학년부부터 실시하는 '건강체력평가'는 초등 3학년부부터 시행한다.

또한 중학교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시간을 3년간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약 30% 이상 확대, 실시하게 된다. 현재 164개에 불과한 학교 수영장은 2027년까지 467개로 400여개소나 늘린다.



이 윤 혜

파스코 대표이사

이는 초중고 12년간의 생활이 평생건강의 기본이자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써 이 시기의 올바른 건강관리, 심신의 발달이 국민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부의 체육에 대한 근간이 되는 정책의 변화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사항을 정리하였다.

이제는 더 큰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국가대계이기에 다소 부족하지만 여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1994년 고입, 1995년 대입부터 체력장제도가 폐지되면서 학교 체육의 흑역사는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중요과목(?)이라 하

는 시간으로 대체되거나, 있으나마나한 시간으로 고사 직전이었다.

특히 초등학교는 70~80%를 증가하는 여학생들의 점유율 증가로 (전부는 아니지만) 학교 체육을 제대로 실시하기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또한 중·고교 체육도 임용고시제도로 인해 체육과는 동떨어진 분들이 관련 지식, 기능이 별로이면서도, 풀랑 시험 하나로 '체육'을 맡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가지도자, 정부정책의 입안, 실행자들의 철학의 빈곤, 무지, 무식, 무책임이 포함된 이런저런 여건으로 인해 지난 30여 년간 학생들의 올바른 심신의 발

달이 도외시 되었다.

또한 100m도 달릴 수 없는 손바닥(?) 만한 운동장에서 학교 체육의 중요성도 인지하지 못하고, 따라서 체육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오로지 대학입시 하나에 목을 매는, 정글 같은 야만이 판치는, 숨 막히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

성장기의 대부분인 학교체육을 소홀히 한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군(軍)과 국방체력으로 직결되어 군 장병들의 체력은 기대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다.

또한 복무기간도 임대하자마자 제대하는 듯한, 일단유사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단축되어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전투체력을 확보, 발휘할까? 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관련자들의 눈물겨운 절기찬 노력으로 비록 늦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겨우 이 수준까지 회복된 것이 아니라도 불행 중 다행이랄까?

좀 더 상환, 개선하고 다듬어서 다음 세대에서는 건강한 국민, 질 좋은 삶, 더욱 부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전북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

전라북도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가 열렸다.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는 최근 완주군에 회관에서 (2023년 전라북도 경로당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장을 비롯해 완주군지회장 등 전북 도내 14개 시·군 노인회 지회장,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김두봉 연합회장, 유희태 완주군수, 서남용 완주군시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행복이 가득한 경로당 만들기'라는 슬로건으로 발표회를 시작했다. 어르신 발표자들은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익힌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생활체조, 난타, 라인댄스, 건강체조, 손가락 난타, 치매 예방 풍물 등 갖고 닦은 실력으로 맘껏 축제의 장을 펼친 것이다. 특히 으뜸상을 차지한 군산시지회 금당경로당은 멋진 공연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버금상은 완주군지회 (하고성 경로당)이 받았다. 그밖에 12개소 경로당은 화북상을 각각 받았다. 고창군지회 성북경로당은 응원상을 수상했다. 이에 앞서 경로당 활성화 및 전북연합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남원시지회 정영선 경로부장과 전주시지회 이영이 경로부장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우수경로당으로 선정된 전주시 상산타운경로당 등 8개소 경로당에는 '우수경로당 증서'를 전달했다. 김두봉 연합회장은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다양한 공연을 준비한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도내 6800여개 경로당에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진정한 쉼터이자 희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세계평화여성연합 환경 캠페인

세계평화여성연합 전주시지부가 최근 환경 지킴 캠페인 '줍깅'을 벌였다. 제78주년 유엔의 날을 기념한 제6차 전국 동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전주 모래내 시장 인근에서 소속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여성연합 전국 동시 봉사활동은 2021년부터 매년 진행되어 지금까지 8,570여명의 참여자가 함께 했다. 2022년부터는 '하나뿐인 지구, 한 번뿐인 지구'이라는 슬로건으로 정착했다.

전국 186개 지부에서 2200여명의 회원이 지역 환경 정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지부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세계평화여성연합은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이자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포괄적 협의 지위 기관이다.

매년 '호국보훈의 달'과 '유엔의 날'을 기념하여 봉사의 날을 지정하고 전국 지부에서

회원들과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환경 보전은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 일이다.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물자를 아껴 쓰고 재활용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물과 전기를 아껴 쓰고, 생활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무분별한 개발을 금지하고, 환경보호법을 강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환경 보전의 방법으로 시작된 그린벨트(greenbelt)는 1950년대에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다.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한 구역이다. 나무를 훼손하거나 건물을 지을 수 없어서 자연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다.

우리 동네부터 깨끗하게 보존하고 가꾸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환경 지킴의 시작이다.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남겨주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 보호 활동에 동참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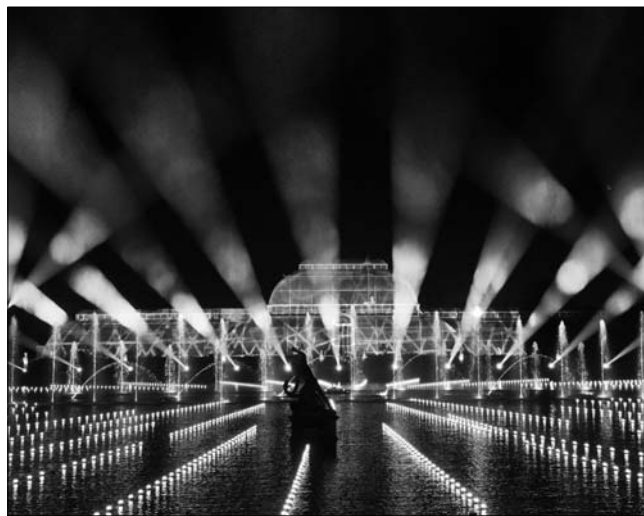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캐나다 조폐국, 찰스 3세 새겨진 '루니' 동전 공개



14일(현지시간)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페그의 캐나다 조폐국에서 마리 르메이(왼쪽) 캐나다 조폐국장과 디자이너 스티븐 로시티가 찰스 3세의 초상이 새겨진 새 주화를 공개하고 있다. 캐나다 조폐국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75세 생일을 맞아 그의 초상을 새겨 새로 제작한 1캐나다 달러 동전(일명 루니)을 공개했다.

화려한 조명 비치는 큐 왕립 식물원 내 팜 하우스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큐 왕립 식물원에서 열리는 빛 축제의 하나로 팜 하우스에 화려한 조명이 비치고 있다. 올해의 빛 축제는 15일 개막해 내년 1월 7일까지 이어진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